

3대 주요질병(암/심혈관/뇌혈관) 보장이 확대되고, 선택특약으로 "당뇨"를 보장합니다.

삼성생명 종합건강보험 2.0 (무배당) 일당백



질병보다 더 무서운
치료비와 생활비부담

질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후속 부담입니다.

동아일보

2017년 2월 3일

암보다 무서운 실직 공포... 치료후 복직해도 적응 어려워

[20~40대 암 발병 급증]국민 35명중 1명꼴 암 생존자 암에 걸려도 70%는 5년이상 생존...

업무부담-동료 눈치에 일 그만둬 경력단절로 경제난-

고립감 호소 치료에서 생존자 관리 시대로 전진국선 회사마다 복귀 지원 인력... 한국도 3월 전담부서 만들기로

대기업에 다니다 유방암에 걸린 이지혜(71면·34세) 씨 1년 간 암을 치료한 뒤 지난해 말 가까스로 회사에 복귀했다. '다시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힘겨운 항암치료를 버텼지만 직장 생활은 예전과 많이 달랐다. 조금만 아픈을 해도 너무 힘들었고 암이 재발되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결국 그는 어렵게 되찾은 직장에 사표를 냈다.

국민 35명 중 1명은 암 생존자

*암 환자들 사이에서 '암을 극복해도 결국 직장 복귀를 못하고 뺨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회사에 복귀해 보니 배에 사투리가 이 말이 와 닿네요.' 이 씨의 하소연처럼 '암 이후의 삶'을 관리하는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인이 기대수명(82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36.2%. 남성은 기대수명(78세)까지 살면 5명 중 2명(38.7%), 여성은 기대수명(85세)까지 3명 중 1명(33.1%)이 암에 걸린다. 국내 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89.1명에 이르다. 반면 암 생존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0~2014년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3%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암에 걸려도 5년 이상 생존한다는 뜻이다. 2001~2006년 암 생존율 53.9%에 비해 16.4%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는 치료 기술의 발달과 평균소득 상승의 영향이다. 또 흡연율이 줄면서 폐암이, 식생활 개선과 조기 검진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암 생존자는 총 146만 명(2015년 1월 기준)이다. 국민 35명 중 1명은 암 생존자

인 셈. 암 생존자 중 20~40세 핵심생산인구에게는 직장 복귀 등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립암센터 간접 알관리사업부장은 "과거에는 암에서 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전부였다"라며 "이제는 암이 만성질환처럼 여겨지면서 암 치료 후 다시 일상에 정착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암 생존 후 직장 복귀, 현실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대기업에 다니던 김모 씨(42)는 위암 수술을 받고 복직했지만 결국 회사를 그만 뒀다. 수술 후 추유증으로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해야 했고, 주요 업무였던 거래처 술자리 등은 나갈 수 없었다. 회사도 김 씨를 부담스러워했다. 삼성서울병원 안과외과에 따르면 국내 위암 생존자의 경우 암 진단 후 실업률은 46.8%로 진단 전(34.1%)보다 12.5%포인트나 증가했다. 829명의 폐암 생존자 중 암 진단 전에는 68.6%가 직업을 갖고있었지만 치료 후에는 38.8%로 감소했다. 영아강사 장모 씨(32)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던 중 유방암에 걸렸다. 치료 후 학원에 복귀하려 했지만 수험생 관리 등 도저히 업무를 해낼 자신이 없어 5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암 생존자들은 피로를 비롯해 직장 생활 중 식단 및 재활동 부담감, 위약 변화, 업무 시간 중 치료 시간 조절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스스로 위축되고 불안, 우울 증세가 생긴다. 암 수술 후 최근 복직한 최모 씨(45)는 "제대로 일을 하

겠느냐"는 직장 동료들의 부정적 시선에 매일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암 병력이 없는 생인의 24%가 '암 진단을 받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연구도 있다.

정부 암 생존자 관리 전담 부서 신설

암 생존 이후 경력이 단절되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것을 넘어 '생산활동인구 감소', '국가 의료비 증가' 등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암 생존자를 위한 사회적 기반은 부실하다. 정부의 암 정책이 조기 발견과 의학적 치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암 치료 시와 달리 암 생존자의 진료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많은 회사들이 암 생존자가 회사에 복귀해 정착할 수 있는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전담하는 인력까지 배치한다. 암 생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암생존자 전담 부서'를 만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국립암센터에 암생존자지원과가 신설된다.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 심리적 지원,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민구 질병정책과장은 "암 생존자를 위한 권역별 통합센터도 올해 안에 3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전미선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암생존자 전담 암 생존자도 조금 배려해 주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도 절실히"라고 말했다.

김원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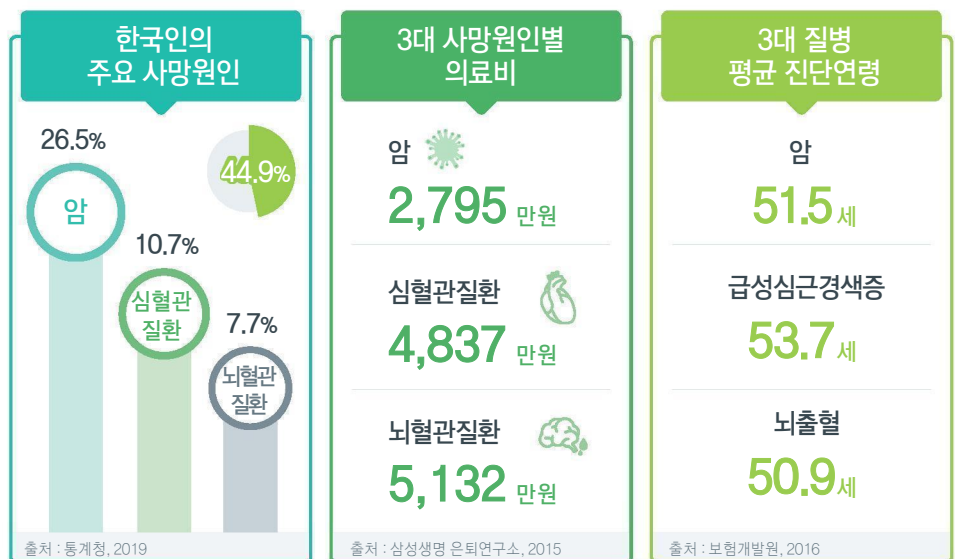
3대 질병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년 상대생존율 추이 (모든 암)

1996~2000년	45.1 %
2001~2005년	54.1 %
2006~2010년	65.5 %
2013~2017년	70.4 %

*5년 상대생존율 : 암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
※출처 : 국립암센터, 2019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3대 질병이 44.9%, 그만큼 의료비용도 많이 지출됩니다.



3대 질병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발병 후 생존율도 높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발병 이후 의료비/생활비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주보험에서
든든한 보장 제공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대 질병을 주보험만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최초 1회 한 보장)



※ 암이란 주보험 약관 별표[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1년내 50% 지급하는
감액기간없이 보장

1년 이내 진단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감액기간 없이
100% 보장해드립니다.



※ 암진단보험금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부터 보장하며 유방/자궁/전립선암으로 계약일부터 1년 이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특약을 통해
더 넓은 대비 가능

주요 3대 질병에 특화된 특약들로 꼼꼼하고 넓은 범위의 대비가 가능합니다.



※ 상기 각 특약에서 계약일부터 1년 이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컨설턴트

발행일자: 년 월 일 E-mail :

삼성생명 최초로 당뇨 관련 특약 도입

당뇨병진단특약 및 당뇨플러스진단특약 4종을 신규 도입하여 만성질환 관련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서구식 생활습관으로 변화함에 따라 당뇨 환자 및 당뇨의 만성화로 인한 주요 질환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수 추이

(단위 : 명)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당뇨환자의 3대 질환 발병 증가율

구분	발병률	구분	발병률
위암	2.7 배	췌장암	7.3 배
대장암	3 배	뇌출혈	2.4 배
폐암	3 배	심근경색	4.2 배
간암	4.4 배		

출처 : 대한당뇨병학회, 2015

당뇨병진단특약, 당뇨플러스진단특약 4종(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 등
당뇨 관련 특약을 선택하고 해당 특약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진단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진단특약, 당뇨병(당화혈색소 7.5% 이상)진단특약]

※ 「당뇨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형특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당뇨플러스진단특약류]

※ 「당뇨후 암 보장개시일」, 「당뇨후 뇌출혈 보장개시일」, 「당뇨후 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당뇨후 말기신부전증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형특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암진단보험금, 뇌출혈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고지우량체 또는 슈퍼우량체 선택 가능

※ 일정조건 충족시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객님들께 보험료 할인혜택을 드립니다(3대질환진단 및 사망보장).

고지우량체	슈퍼우량체
※ 아래 2개 기준 동시만족	※ 아래 4개 기준 동시만족
표준체 中	표준체 中
☒ 최근 1년 이상 비흡연자 ☒ BMI(체질량)지수 20.0 이상 25.0(kg/m ²) 미만	☒ 최근 1년 이상 비흡연자 ☒ BMI(체질량)지수 20.0 이상 25.0(kg/m ²) 미만 ☒ 혈압 : 수축기혈압이 120mmHg 미만, 이완기혈압이 80mmHg 미만 ☒ 혈당 : 공복혈당 수치 100mg/dL 미만

※ 고지우량체는 당사가 정한 확인서 양식에 소정의 내용을 작성 후 제출, 슈퍼우량체는 당사가 정한 진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로 상품경쟁력 업그레이드

"삼성생명 종합건강보험2.0(무배당 일당백)"에 특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해드립니다.

3대 질병 진단 케어서비스

최초 가입 후 15년 이내 주보험 보험금 수령시 5년간 해당 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간호사 동행서비스, 면역력 검사, 질병 예후관리 지원 등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수령시 각 1회한 신청 가능합니다.

당뇨케어 서비스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특약 가입자 대상]

최초 가입 후 15년 이내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진단보험금 수령시 5년간 해당 서비스 제공(서비스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최초 1회 신청 가능

건강관리 지원, 운동코칭, 당뇨 자가관리 지원, 근골격계 질환 자가관리 지원 등

컨설턴트

삼성생명 종합건강보험 2.0(무배당) 일당백

|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표준체, 1종(무해지환급금형), 기타 자세한 가입조건은 아래 예시 참고

[단위 : 원]

구 분	가입금액 (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35세	40세	45세	35세	40세	45세
주보험	2,000	100세만기 20년납	48,000	54,000	61,000	36,400	40,200	43,600
소액질병보장특약VD(무배당)	1,000	100세만기 20년납	4,260	4,620	4,980	7,080	7,040	6,830
급성뇌경색중진단특약D(무배당)	1,000	100세만기 20년납	11,270	13,020	15,120	8,820	10,080	11,530
뇌혈관질환진단특약D(무배당)	1,000	100세만기 20년납	18,520	21,460	25,130	18,670	21,560	25,100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D(무배당)	1,000	100세만기 20년납	16,800	19,600	22,900	13,000	15,000	17,300
만성간 · 폐 · 신장질환진단특약D(무배당)	1,000	100세만기 20년납	13,490	15,040	16,600	6,110	6,610	7,180
6대난치성질환진단특약D(무배당)	1,000	100세만기 20년납	199	218	242	213	214	218
신입원특약D(무배당)	1,000	100세만기 20년납	7,200	7,900	8,900	9,400	10,300	11,600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1,000	15년만기 전기납	2,060	3,090	4,190	1,220	1,880	2,640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1,000	15년만기 전기납	1,090	1,510	1,860	580	810	1,090
당뇨플러스 암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1,000	15년만기 전기납	3,800	6,100	9,400	5,600	7,100	8,500
당뇨플러스 뇌출혈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1,000	15년만기 전기납	1,840	2,550	3,420	980	1,420	1,980
당뇨플러스 급성심근경색중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1,000	15년만기 전기납	1,840	3,160	4,890	430	710	1,220
당뇨플러스 말기신부전중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1,000	15년만기 전기납	830	1,190	1,650	500	690	920
합계보험료			131,199	153,458	180,282	109,003	123,614	139,708

| 위 보험료 예시에 따른 주보험 및 선택특약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표준체, 1종(무해지환급금형), 남자 40세, 월보험료 153,458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 후 100세까지 생존시

경과년도	나이	납입보험료 누계(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1년	41세	1,841,496	59,690	3.2
3년	43세	5,524,488	189,570	3.4
5년	45세	9,207,480	415,500	4.5
10년	50세	18,414,960	837,000	4.5
20년	60세	38,829,720	5,222,570	13.4
40년	80세	56,764,920	19,108,950	33.6
60년	100세	85,063,320	-	-

- ※ 갱신형 선택특약의 경우, 보험료는 갱신시 나이증가,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N15"로 표기된 선택특약은 15년만기로 갱신되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장되며, 이 경우 보험료는 최종 갱신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갱신형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 좌측 예시된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에는 특약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갱신형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계속 갱신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 ※ 좌측 예시는 갱신형특약의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최초가입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이며, 갱신형특약의 기초율 변경 또는 갱신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보험 및 선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예시된 금액과 달리 감소될 수 있습니다.
- ※ 좌측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해당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종(무해지환급금형)의 경우 좌측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경과년도 직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 좌측 예시는 주보험 및 비갱신형 특약이 1종(무해지환급금형)인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2종(유해지환급금형) 선택시에는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종(무해지환급금형)은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포함)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해당일 이후의 해지환급금이 2종(유해지환급금형) 대비 동일하거나 적은 대신 2종(유해지환급금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계약자 ·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 ※ 청약시 청약서 자필서명란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시에 약관 ·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사고 · 가입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제2020-0449호(채널지원팀, 2020. 3. 24)]

컨설턴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발행일자 : 년 월 일 E-mail :